

## 경찰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에 관한 소고: 통역 교수자의 관점에서

이 지 은  
(이화여대)

### 1. 서론

경찰 수사단계에서 통역은 외부 인력이 담당하며 경찰 통역인은 ‘민간인 통역요원’, ‘민간인 수사통역요원’ 등으로 불린다(이지은 2014). 2010년대 중반 외국인 범죄 증가 추세 대비 통역인 숫자가 감소세를 보인 것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경찰은 각 지역에 일정한 수를 할당하기까지 하여 전국 경찰 통역인 숫자를 다시 3천 명 이상으로 늘렸다(이지은 외 2018a, 이지은 2019). 외국인 조사 시 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물론, 수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할 때 통역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통역 품질과 직결된 통역인 자질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 통역인 모집 방식과 선발 기준은 통역 실력을 비롯한 통역인의 자질 검증과 거리가 있다. 전화를 통한 간단한 회화 능력 테스트와 통역 경력 등을 기준으로 통역인을 모집하고, 형사사법포털(KICS)에 통역인 연락처와 언

어 등의 정보를 토대로 통역인을 섭외한다(이지은 외 2018a). 비공식적으로는 섭외만 되면 누구든 통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통역인들의 역량이 대체로 부족한 편이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통역인에 대한 신뢰가 높지 못하다(이지은 외 2018a; 이지은 2019: 171).

수사면담에서 통역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다룬 연구를 보면 통역과 통역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Lee 2017; Lee and Hong 2020; 이지은 과 홍서연 2020; 이지은 2021). 경찰 통역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역 기술 외에도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기초지식과 통역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윤리의식 등이 요구된다. 즉, 통역 기술뿐 아니라 직무 윤리의식 또한 통역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하지만 국내 여건상 직무 윤리 요건은 관리가 쉽지 않다.<sup>1)</sup> 해외에서 사법통역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사법통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통역인 자격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경찰 통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가 경찰청 주최 통역인 집합교육 또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단위의 소규모 간담회 형식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이지은 2019; 홍서연 2018).<sup>2)</sup> 그런데 간담회는 두세 시간에 불과하고, 보통 다과와 식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통역인 격려 차원의 행사 성격이 크다. 그리고 경찰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통역 기술에 대한 교육은 없고 간혹 수사 용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 한편 경찰청 외사과가 2017년 시범 교육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한 경찰 통역인 위탁교육 프로그램은 경찰 자체 교육이 아닌, 사법통역 전문가가 참여한 교육이

1) 2020년 경찰 민간통역요원 모집공고를 보면 통역인 결격 사유가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 첫째, 통역인에 대해 범죄경력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통역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경찰이 사건과 무관한 통역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어렵다. 둘째, 국내 실정상 통번역 업무가 자격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은 무의미하다. 한편 스웨덴, 호주 등 해외에서는 경찰 통역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조사가 필수조건이다. 미국 법원통역사의 경우 FBI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  
2) 통역인 간담회는 경찰 내부 인력이 통역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 수사절차 및 용어, 외국인 인권보호 절차, 다문화 관련 범죄 예방 활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통역인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왔다(홍서연 2018: 217).

라 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누적 숫자 기준 약 1,400명의 통역인에 대한 단기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경찰청은 ‘전문 수사통역관 인증제도 및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연구’(이지은 외 2018a)를 통해 통역인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할 정도로 제도 마련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본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경찰 통역인 전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위탁교육을 설계한 교수가 경찰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사항에 대해 성찰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자로서 경찰 통역인 교육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내용과 피드백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변화를 시도한 점에서 실행 연구적<sup>3)</sup> 접근을 취하였으나 본고에서 개선을 위한 변화와 반응 및 결과를 주기 별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경찰 통역을 포함하는 사법통역의 인증과 관련 교육에 대한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경찰 통역인 교육과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략히 논한 다음 본 연구 대상인 경찰 통역인 위탁교육의 주요 특성과 문제점 내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 2. 관련 선행연구

국내 사법분야에서 일하는 통역인에 대한 교육은 기관별 오리엔테이션 또는 간담회 형식의 약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이뤄지는 통역이 전문통역으로 인식되지 못하다 보니 관련 통역 교육이 전문통역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비학위과정으로도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원, 경찰, 법무부 등이 통역인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위탁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경찰 통역을 비롯해 이러한 교육은 대개 단발성으로 교육 시수나 교육 내용, 연속성 측면에서 통역인의 역량

3) 실행연구는 당사자가 자신의 현장과 관련된 문제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직접 연구에 참여하며, 현실의 문제 상황을 개선하거나 성찰하기 위해 연구 주체가 되어 성찰과 실행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나은 실천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강지영과 소경희 2011: 200-201; 이지은 2013: 198).

을 강화하기에 부족하다. 이화여대 비학위과정과 이주민방송의 통역인 교육 등 몇 건을 제외하면 수십 시간 이상의 사법통역 교육은 드물다(홍서연 2018). 법무부의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시험(정철자의 2019a)과 수원지방법원의 시범 사업을 필두로 법원 통번역인 인증 평가시험(이지은 외 2018b; 정철자의 2019b)이 실시된 것은 진일보한 성과이지만 단기 용역과제 형태로 시행되어 해외 사법통역 인증시험 운영방식에 비해 개선점이 많고 지속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통역 교육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도 그 한계다. 통역인의 자질을 높여서 사법통역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해외 모범 사례와 같이 통역 능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범 사례에 해당하는 외국의 경우, 국가별 제도 차이가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사법통역 인증이 이루어지고, 교육은 교육기관이 담당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다만, 재정적인 이유나 교수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외에도 사법통역 정규 교육과정이 많지는 않다(Stern and Liu 2019: 364). 호주와 스웨덴의 경우, 사법통역과 관계된 전문 통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대학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은 없다. 영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통역(DPSI)과 경찰 통역(DPI) 자격인증 시험이 있으며 관련 교육은 시험 운영기관(CIOL) 또는 대학에서 제공한다(이지은 외 2018a: 13).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통역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줄어든다. 법원 통역사 인증시험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는 인증시험 준비과정이 있는 학원이나 대학에서 사법통역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통역에 대한 인증제도만 존재할 뿐 미국의 경찰 통역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수사관이 통역을 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나 통역 품질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Berk-Seligson 2010; 이지은 2021).

국내에서는 교육 기회가 부족한 이유로 사법분야에서 활동하는 통역인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설문조사 대상이 경찰 통역인에 국한되지 않았지만 이지은(2013)에서는 사법통역인 중 80%가 훨씬 넘는 응답자들이 40시간 이상의 통역인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경찰 통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지은 2019: 185)에 의하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기 원하는

희망자가 90%에 육박한다. 하지만 실제 참여 가능한 교육 시간과 횟수에 대한 응답 내용을 보면 단기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이는 통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경찰통역 교육 시간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가리킨다. 문제는 일정 수준의 통역 기술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 교육의 특성상 통역 기술을 숙달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한된 교육 예산과 자원으로 효과적인 전문화 교육을 하려면 전체 통역 인력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기를 갖춘 인원을 선발하여 집중 교육할 필요가 있다.

통역인력 전문화 방안으로 이지은 외(2018a: 165)가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전문화 교육 대상자로 한정하고 이들을 수사통역 전문 인력으로 정예화하는 것이 골자다. 일일 교육과 같은 단기 교육으로 경찰 통역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중언어 구사력 및 기초 통역 기술 평가를 통과한 통역인들을 상대로 예산 규모에 따라 20~45시간 전문화 교육으로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선발평가에서 일정한 기준점(75점) 이상의 득점자를 전문화 교육 대상자로 하고 이 중에서 언어 숙달 수준에 맞게 중급 및 고급 과정의 수사통역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 개인의 니즈에 맞는 통역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종료 시점에서 실시되는 개별 평가를 경찰 통역 인증평가로 간주할 수 있다(이지은 외 2018a: 165). 통역 인력이 부족한 소수언어의 경우 중급 교육과정 자격 미달자를 위해 한국어 숙달을 위한 40시간 가량의 초급 교육과정도 제안하였다(이지은 외 2018a: 213).

통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집합교육 시간의 한계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통역인들의 교육 필요를 감안할 때 온라인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이 통역인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온라인 교육을 몇 차례 실시한 바 있으나 자세한 교육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진 바가 없으며, 통역인이 알아야 할 지식과 통역기술 등을 동영상 강의로 시행한다면 보다

4) 2018년 교육생 응답자 중 87.2%가 심화교육에 매우 긍정 또는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집합 교육 횟수로 4회 이하를 희망했고, 대부분 10시간 이내의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도 10시간 미만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이 20시간 미만의 교육을 선호하였다(이지은 2019: 185).

많은 통역인들이 시간간의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홍서연 2018: 277).

온·오프라인 교육의 특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이지은 외(2018a: 214)는 지식 위주의 강의 수업과 통역 실습 교육을 적절하게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교육 내용은 경찰 통역에 필요한 핵심 역량 배양을 내용으로 하며, 통역기술 교육과 한국어 교육, 그리고 경찰 통역과 관련된 사법절차, 수사기법, 법률용어, 통역 규범, 상담 등의 주제강의가 온·오프라인으로 구성된다(이지은 외 2018a: 165). 중장기 교육과정 중 중기에 해당하는 과정만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이지은 외 2018: 145-147).

<표 1> 중기 교육과정 개요

과목	시수	특이사항	교육방식
한국어 숙달	5시간	이주민 대상	온라인
과제 (기초기술 연습/형사사법 제도 및 용어 조사)	6시간	석사과정 통역 전공자 면제	
상담 및 범죄피해자 보호	2시간		
주제강의 (형사사법절차와 통역인 역할 윤리)	5시간	법학 전공자 법률 강의 면제	오프라인
통역 훈련	6시간	석사과정 통역 전공자 면제	
현장실습	2시간	경찰 통역 유경험자 면제	

통역인 교육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들의 관심이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이 충분히 가능한 과목을 구분하여 집합교육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제강의와 통역 실습 교육도 일부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6시간 통역 실습 교육 외에 기초 기술 훈련과 용어 및 제도 조사를 과제 형식으로 수행하는 온라인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한국어 숙달은 경찰 통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주민이 한국어 수사 관련 담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언어 과정이다. 학습 동기 부여 차원에서 교육 니즈를 고려하여 자신의 전공 영역 과목은 이수 면제도 가능하다.<sup>5)</sup> 통역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도 처음으로 제안하였는데 그 목적은 두 가지다. 경찰 통역을 하다 보면 강력범죄에 관한 내

용을 다루면서 간접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데 통역인들이 관련 스트레스를 해소,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통역인은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일 교육에 비해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효과는 뛰어나지만 예산 확보 등 경찰 내부의 중장기적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다. 위 연구 내용을 현실화할 제도 여건이 아직은 미비하여 최근까지 경찰 통역인 교육은 기존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위탁용역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음 장에서 최근 위탁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 교수자 입장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하겠다.

### 3. 경찰청 위탁 민간인 통역인 교육

#### 3.1 운영 개요

본 연구 대상인 경찰 통역인 교육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청이 발주한 위탁용역과제 형태로 진행되었다. 아래 <표 2>에 연도별 주요 특징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3년간 진행된 교육과정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사업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교육 내용과 콘텐츠를 결정하는 총괄적인 기획에서 연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통점이 있다. 해마다 경찰은 교육 예산을 증액하여 교육 대상 인원을 늘렸다.

5) 예를 들면 식사과정 이상 통역 전공자는 통역 실기 교육을 면제해주고, 법학 전공자는 형사사법 이론을, 한국어 원어민 통역인은 한국어 숙달 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표 2> 연도별 위탁교육 개요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위탁사업자	대학교 산학협력단	통번역 및 컨퍼런스 기획 에이전시	통번역 및 행사대행 에이전시
대상 지역 및 규모	수도권 200명	수도권 400명	전국 750명
교육과정	단일과정	기본/심화과정	기본/심화과정
방식	면대면	면대면	비면대면

3년간 교육 내용은 수사이론, 통역이론, 통역실습 수업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전체 수업인 이론과 달리 통역실습은 언어별 분반 실습이 가능하도록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반과 기타 언어를 위한 한국어반을 개설하여 총 8개 언어 통역실습반을 운영하였다. 수사이론은 경찰교육을 담당하는 수사전문가가, 통역이론은 사법통역 전문가가, 각 언어별 통역실습은 통역 교강사 또는 통역 교육이 가능한 교강사급 해당언어 전문가가 담당하고, 관련 교재 집필에 참여했다. 수사이론 강사들은 경찰대학 교수로 강의 경험이 많으며 1명은 지난 3년간 통역인 교육에 계속 참여했고, 나머지 2명은 2년 연속 강사로 참여했다. 통역이론 강사는 사법통역 전문가이자 통역 교수이고, 몇몇을 제외하면 3년 동안 위탁교육에 참여한 강사가 대부분이다.<sup>6)</sup>

<표 3> 2018년~2019년 위탁교육 과목별 시수와 수강 인원

구분	수사이론	통역이론	통역실습
2018년	1시간 30분	1시간 30분	1시간 40분
	35~40명	35~40명	분반 10~15명
2019년	1시간 30분	1시간 30분	1시간 40분
	60~65명	60~65명	분반 15~20명

2018년과 2019년에는 일일 교육 형태로 서울, 수원, 인천의 교육장에서 인원을 나누어 11월에 교육하였다. 수사이론(90분)과 통역이론(90분)은 해당 일자

6)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통역 실습 강사는 전문 통역사 출신 한국인 강사들이고,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통역 실습 강사는 전문 통역사는 아니지만 국내 대학에서 해당 언어 교수 경험이 풍부한 원어민 강사다.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언어별로 분반하여 실습수업(100분)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연구자 소속 기관이 위탁교육 사업자였던 2018년에는 분반 인원이 절대 15명을 넘지 않도록 연구자 의견을 충분히 담당자에게 설득하여 관찰시킬 수 있었으나 2019년 이후 실습반별 적정 인원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2019년에는 위탁교육 사업자가 통역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영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되며, 2020년에는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일정 조율이 어려워 경찰이 신청 받은 대로 진행한 결과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 인원 조정이 여의치 않았다.

2018년 위탁교육에는 단일 교육과정이 없었으나 2019년부터 기존 교육 내용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심화과정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심화과정은 2018년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 교육시수와 방식은 동일하였고, 교육 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예를 들어 기본과정 수사이론은 경찰수사의 주요 개념과 절차를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다루고, 심화과정은 형사사법 법률 기초교육의 성격을 가미하여 주요 범죄 유형과 판례 등을 다루었다. 기본과정 통역이론은 통역과정과 방식, 통역품질의 요소와 통역능력, 통역인의 직무 윤리를 알기 쉽게 다루었고, 심화과정 통역이론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 원칙을 리뷰하는 시간에 이어 법률언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사담화에서 입말과 글말의 차이를 설명하고, 수사통역 전문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통역실습 수업은 이론 수업을 먼저 듣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억력 훈련부터 노트테이킹 기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대화통역과 시역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기본과정 통역실습에서는 마약사건과 폭력 사건을, 심화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통역 연습하도록 하였다.

2020년 12월에 실시된 위탁교육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세 가지 수업을 각기 다른 날에, 또는 경우에 따라 이론 수업 두 가지를 하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순서상으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론 교육을 마친 다음 실습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2020년에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구분되었는데 심화과정 교육생 숫자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이들의 통역능력을 교육 종료 시점에서 평가한 것도 기존 교육과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그런데 2020년에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구분 기준이 달라졌다. 2019년 심화과정은 기존의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0년 경찰청에서 각 지청에 교육 신청에 대해 안내할 때 우수한 통역인을 심화과정에 추천하도록 한 것을 연구자는 교육 개시 이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심화과정 수강생은 기본과정 이수자들과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여 경찰이 보기에 ‘우수한’ 통역인들이 섞여 있었다. 물론 경찰에서 생각하는 ‘우수한’ 통역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강사 피드백과 개별평가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2020년 기본과정은 전과 같이 8개 언어 통역반이 편성되었고, 심화과정에서는 10명 이상을 언어별 분반 구성 기준으로 적용하여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기타 언어합반(한국어) 5개 언어 통역반이 편성되었다. 심화과정 실습수업 시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언어별 통역 수요를 고려하여 강사 재량으로 교육 내용을 추가하도록 안내하였다.

<표 4> 2020년 위탁교육 과목별 시수와 수강 인원<sup>7)</sup>

구분	수사이론	통역이론	통역실습
기본과정	1시간 30분	1시간 30분	3시간
	51~146명	58~141명	분반 6~57명
심화과정	2시간	3시간	3시간 x 3회
	34~63명	31~64명	분반 8~22명

<표 3>과 <표 4>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에는 예전에 비해 교육시간이 확대되었다. 기본과정의 경우 이론 수업 시수는 동일하지만 통역실습 시간은 두 배로 늘었다. 심화과정은 수업 시수를 대폭 늘었다. 수사이론은 2시간으로, 통역이론은 3시간으로 늘었고, 통역이론 수업에 형사사법 용어의 의미와 학습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추가하였다. 통역실습은 9시간으로 확대하여 3시간씩 3회 수업을 받도록 하였다(<표 4> 참조). 2~3주 내에 많은 수의 교육

7) 배정 인원과 실제 수업에 참여한 인원 차이가 있어 <표 4>에는 수료자 기준으로 참석한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을 표기하였다. 수업 불출석자도 있었지만 영어, 중국어와 같이 두 개 반이 개설된 심화과정 실습반의 경우, 개인 일정에 따라 다른 반 수업에 참여한 경우도 있어 3회 강의일마다 수업인원이 일정하지 않았다.

생을 대상으로 한 전체 교육이 종료되도록 수업 일정을 짜다 보니 심화교육의 실습수업은 거의 격일 간격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다.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평일 또는 토요일 오전 또는 오후에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교육 시간을 맞추기 위해 2020년에는 일요일과 평일 저녁시간까지 수업을 개설하였다. 수사이론과 통역이론은 주중과 주말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과정의 경우 7회 강의를 개설하였고, 심화과정의 경우 2개 강의 중 택일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경찰측에서 일차적으로 개별 수업 일정을 배정한 뒤이고 교육일정이 촉박한 탓에 수업별 인원 조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 초반에 14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이론 수업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 3.2 위탁교육 사업자

2018년 위탁교육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연구자 소속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었다. 계약관계는 그러하지만 예산 집행 및 교육 전반에 걸쳐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연구자가 책임연구자로서 담당하였다. 시범교육 이후 처음 시행하는 위탁교육이라 2018년도에는 경찰청 담당 직원과 상의하면서 세부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교육일정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져서 조정이 필요한 일이 많지 않았고, 교육 일자별로 지역별 지방경찰청 소속교육 대상자를 배정하였다.

2019년부터는 입찰과제 조달규정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아닌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통번역 에이전시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019년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찰 통역인 교육 경험과 전문성이 없어 연구자가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자문을 제공하였다. 연구자가 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위탁사업자는 자문 사항을 존중하지 않았다.<sup>8)</sup>

8) 대표적인 예로 통역실습반 인원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또 다른 예로 교육에 앞서 전체 강사 미팅을 열어서 교재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자문했음에도 위탁사업자는 전체적인 조율을 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강사는 사법통역 강사로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 위탁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의심스러웠다.

2020년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2019년 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행사 대행 에이전시이다. 하지만 이 업체의 대표는 대학원 통역을 전공하여 실무는 물론 통역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고, 연구자의 교육 의도와 계획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업자로서 위탁교육을 위한 자문 의견을 성실히 수용하였으며, 750명이나 되는 많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준비, 실시된 교육 프로그램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강사뿐 아니라 교육생들과도 매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교육 및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제안이 관철되지 않은 점도 있으나 대부분 중요 사안마다 중간에서 입장 조율에 성실히 임했다.

### 3.3 교재

2018년부터 교육생을 위한 교재가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2018년의 경우 51쪽 분량에 이론과 실습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포함 9개 언어로 실습 교재가 제작되었다. 수사이론 수업에서는 PPT를 사용한 강의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지만 교재는 수사절차와 기법에 대해 대학교재 수준으로 기술되었다. 통역이론 수업에서는 통역원칙과 방식, 직무윤리를 간단히 소개하였고, 통역실습 수업에는 노트테이킹 훈련용 연습 문장과 마약사범 조사에 관한 대화통역 지문 한 개와 폭행사건 관련 시역 연습 지문 두 개를 포함하였다. 2018년 사용한 교재는 2019년 기본과정의 교재가 되었고, 2019년에 새로 개발한 심화과정 교재는 45쪽 분량으로 수사이론에는 폭력, 강도, 살인, 성폭력과 기타 범죄와 사법처리에 대한 설명을, 통역이론에는 기본과정 교재에 수록한 내용 외에 통역인의 문화중재와 경찰 통역의 언어적 측면에 대해 면담 담화와 조서 담화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통역실습에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 관한 대화통역 지문 두 개와 폭행사건과 관련된 시역 연습용 조서 세 개를 포함하였다.

2020년에는 경찰의 요청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통합교재를 제작하였고 영어본 기준 136쪽으로 분량도 늘었다. 전년도 달리 수요가 적은 우즈베크어는 빼고 한국어를 포함하여 총 8개 언어로 실습 교재를 제작하였다. 일부 콘텐츠는 기존 교재에서 가져왔지만 새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재를 가급적 쉬운 말로 풀어썼다. 대화통역 자료에는 기존 교재 내용에 화재, 중상해, 폭행사건 등 조사 상황 세 가지를 새로 추가하였고, 시역 자료에도 고소장과 교통사고와 건조물 침입사건 등 조사 여섯 가지를 추가하였다. 또 다른 변화로 형사사법 주요 용어 200개에 대한 설명과 외국어 대응어 표현을 수록하였다. 2018년 교육생 설문조사(이지은 2019: 185)에서 경찰 통역과 관련하여 더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 경찰용어를 제일 많이 꼽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니즈를 2020년 교육에 반영한 것이다.<sup>9)</sup>

실습교육 전까지는 교재 집필을 서둘렀으나 경찰 내부적으로 교재 내용 검토과정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교육 시점에 교육생들에게는 문서 또는 PDF 화일로 교재가 송부되었다. 교육이 종료된 후에야 인쇄본을 교육생들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 3.4. 심화과정 교육생 개별 평가

또 하나 2020년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심화과정 교육을 마친 후 개별 통역 평가를 도입한 것이다. 시간 제약 때문에 시험 준비 시간을 많이 허락하지는 못하고 심화교육 종료 후 3~4일 정도 경과한 주말에 온라인 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유구술 1문제(10점), 시역(2문제 총 30점), 대화통역(2개 지문 총 60점) 세 가지 항목의 시험을 20분 내에 마치도록 하였다.<sup>10)</sup>

자유구술 문제는 통역인의 역할에 대해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1분간 비모국어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시역 문제 중 첫 번째 문제는 교재에 2년 연속 포함되고, 이론 및 실습 수업에서 다룬 피의자 권리지었고, 두 번째는 180자 내

9) BBB가 제작한 ‘통·번역을 위한 외국어 경찰용어집(2013)’은 통역인에게 제공되지 않아 현재 그 활용도는 낮다. 913개 용어와 28개 상용 문장이 포함된 용어집이 유용하기는 하나 수정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다(홍서연 2018: 218). 기존 용어집에 ‘번역’ 또는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경찰 수사 용어로 보기 어려운 일반 어휘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교재에는 형사사법 분야 빈출 어휘로 생각되는 용어 200개를 선정하여 의미를 풀어서 제시하였다.

10) 연구자는 비대면 환경과 시험문제 유출 우려로 인해 시역은 3배수, 대화통역은 4배수로 문제를 출제하여 총 24가지 문제 조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시험부정행위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대비하였다.

외의 한국어 진술 내용이었는데 이 지문을 각각 30초 동안 읽고 1분 이내 외국어로 통역하는 문제였다. 대화통역은 두 가지 다른 상황에 대한 문답 10개씩 총 20개 문답을 통역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해당 언어 강사 1명이 평가하였다. 8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경찰이 믿고 통역 의뢰해도 될 통역 실력으로 보았고, 70점대는 이보다 조금 부족한 수준, 60점대는 통역기술 훈련보다 언어능력 향상이 시급한 수준, 60점대는 언어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향상이 매우 시급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채점하도록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강사들에게 제공하였다.<sup>11)</sup>

- 90점 이상: 매우 우수한 통역 능력(소소한 오류 몇 개 정도)
- 80~89점: 우수한 통역 능력(중대한 오류 하나 정도/소소한 오류 몇 개)
- 70~79점: 보통 수준의 통역 능력(중대한 오류 몇 개/소소한 오류 다수)
- 60~69점: 약간 미흡한 통역 능력(중대한 오류 여러 개/소소한 오류 다수)
- 60점 미만: 매우 미흡한 통역 능력(중대한/소소한 오류 다수)

평가 방식에 대한 경찰측과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화 지문 두 개에 대한 통역의 평균점수를 내는 것으로 하고, 시역도 동일한 방식으로 두 개 지문의 평균점으로 계산하기로 결정하고, 배점을 시역 30점, 대화통역 60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언어별로 평균 점수 차이가 크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평가시험에 응한 87명의 평가 대상자 중 절반 가량 8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

### 3.5. 참가자 피드백

2018년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이지은(2019: 183)에서 다룬 바 있다.

11) 평가에 참여한 강사 대부분이 언어평가 또는 통역평가 경험이 많고 연구자와 범원 통역인 인증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또한 인증평가가 아닌 교육 후 평가에 해당하여 별도의 평가 훈련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처음 평가에 참여한 강사의 경우 경험 많은 강사가 채점 결과를 확인하고 점수를 조정하여 동일한 언어 내에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교육생 중 393명이 응답을 완성하고 연구자료 수집에 동의해주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집합교육 종료시점에서 설문지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응답율이 매우 높았던 데 비하면 전자설문으로 실시한 2020년 설문조사의 응답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sup>12)</sup>

교육생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이지은(2019)에 소개된 2018년 교육생들의 프로필과 2020년 교육생 프로필은 유사성이 있다. 2020년 성비는 86.77% vs 13.23%로 여성이 절대 다수였고 2018년 역시 여성이 85.4%, 남성이 14.6%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40대가 가장 많다. 2018년 교육생 중 40대가 3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31%였다. 2020년에는 30대가 41.48% 제일 많고, 그 다음이 35.62%를 차지한 40대였다.

연간 경찰 통역 횟수는 대체로 낮아 2018년 교육생 중 연 5회 미만 경험자가 응답자의 2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회 이상 10회 미만으로 26.6%였다(이지은 2019: 181-182). 2020년에는 교육생의 경찰 통역 경험이 더 적은 편이고, 가장 많은 32.33%가 연 5회 미만이라고 답했고, 9.67%는 전혀 경험이 없었다. 경험이 전무하거나 연평균 통역 횟수가 낮은 응답자를 합하면 42%에 육박한다.

전체 경력도 이전과 큰 차이 없다. 2018년 교육생의 경찰 통역 경력은 1년 미만이 11.3%, 1년 이상 5년 미만은 47%, 5년 이상 10년 미만 24.4%, 10년 이상 13.1%를 차지하였다(이지은 2019: 181-182). 2020년 교육생 중 경찰 통역 경력 1년 미만이 25.19%,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08%으로 경찰 통역 경험이 적은 편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8.24%, 10년 이상은 13.49%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 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2018년 응답자 51.6%의 모국어는 한국어였고, 48.4%가 그렇지 않은 이주민이었는데 2020년에는 모국어가 한국어인 교육생이 36.1%에 불과하고 이주민 교육생이 63.87%로 훨씬 많았다. 또한 이전 교육에는 수도권 통역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수도

12) 2019년 교육생의 피드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자가 제공받지 못하여 정확한 비교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요약 자료에 의하면 감사 대상 설문 이 없었음에도 감사 설문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권 통역인이 57%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전국 곳곳에 있는 통역인들이다.

2018년 교육생의 통역교육 경험은 56.2%가 경찰청 주최 일일교육 참가 경험이 있고, 25.5%는 기타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의 1.4%만 석사과정 통번역 전공자이고 5.8%만 학부에서 통역전공자였다. 2020년 설문조사 참가자가 전체 교육생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교육생의 통역교육 경험을 볼 때 전반적으로 교육 경험이 향상되었다. 2020년 전체 응답자 가운데 경찰 주최 통역인 교육 참가 유경험자는 83.97%에 달했으며, 38.17%가 기타 교육 경험이 있다(1개월 이상 통역 교육 18.32%, 1개월 미만 통역 교육 19.85% 참가). 또 석사과정 통역 전공자가 6.36%, 학부 통역전공자는 8.40%로 전체 교육생 중 통역 교육 유경험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통역인이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2017년 시범교육부터 2019년 위탁교육까지 수도권 통역인 교육에 참여한 숫자는 2020년 교육생의 37.15%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교육 참가 경험이 있는 교육생을 위해 앞으로 교육과정 배정과 콘텐츠 구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3.5.1 교육생 피드백

2018년도와 2020년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직접 비교가 가능한 교육 만족도 관련 네 가지 문항을 살펴볼 때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5〉 교육이 경찰 통역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가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018년	57.10%	38.70%	3.60%	0.00%	0.60%
2020년	64.89%	27.48%	6.62%	0.00%	1.02%

본 교육이 경찰 통역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5>와 같다. 요약하면 절대 다수가 교육이 경찰 통역 업무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표 6〉 수업별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사 이론	2018년	52.40%	37.30%	8.40%	1.80%	1.20%
	2020년	58.44%	31.17%	9.09%	0.00%	1.30%
통역 이론	2018년	58.70%	37.70%	3.60%	0.00%	0.00%
	2020년	58.02%	32.06%	9.16%	0.76%	0.00%
통역 실습	2018년	64.30%	29.90%	5.80%	0.00%	0.00%
	2020년	59.94%	30.53%	7.63%	1.27%	1.02%

2018년과 2020년 교육의 수사이론, 통역이론, 통역실습 과목별 만족도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수사이론 수업 만족도가 소폭 상승하였고, 통역이론과 통역실습 수업 만족도는 소폭 하락하였다. 2020년에 통역실습은 온라인 방식에다 인원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만족도가 조금 하락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대면 방식 교육이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다. 2020년 설문결과를 분석해보면 응답자 가운데는 일정 때문에 실습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응답자도 포함되어 있다.

2020년도 교육생 상당수(63.87%)가 줌(Zoom) 화상교육을 처음 경험했다. 다행스럽게도 절반에 가까운 46.06%가 줌 교육 방식에 매우 만족하였고, 39.95%이 만족하였다고 답하는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과반수 이상이 줌 교육을 선호한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생들은 비대면 교육 방식의 편리성에 만족하였고, 다른 지역 통역인과 함께 실습 수업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자극을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7〉 교재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8년	52.90%	36.30%	10.80%	0.00%	0.00%
2020년	49.87%	39.69%	8.65%	1.53%	0.25%

교재를 사전에 제공하지 못하였지만 실습 수업 전에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설문조사를 보면 예상대로 교재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코멘트도 많았다. 교재의 내용과 편집 스타일을 크게 개선하였음에도 완성된 교재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만족도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교육생들은 교재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더 배웠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사건 관련 예문과 출입국 및 법원 통역까지 광범위한 사법통역 관련 용어가 수록되면 좋겠다는 의견과 소수의견이지만 통역사 자격증 시험 준비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경찰통역인 위탁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일부 교육생들의 이해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다.

### 3.5.2 통역 강사 피드백

연구자를 제외한 통역 강사는 11명으로 이중 10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고 연구자로 수집에 동의해주었다. 6명은 기본과정, 4명은 두 과정 다 강사로 참여하였다.<sup>13)</sup> 강사 피드백의 경우 응답자가 적기 때문에 응답자 숫자를 백분율 대신 사용한다. 대체로 강사들은 교육과정 운영, 시수, 교재 내용과 구성 등에 만족한 편이었다.

강사 전원은 이미 줌 강의 경험이 있었는데 비대면 통역 수업 방식에 대해 강사 10명 중 2명은 ‘매우 만족’, 4명은 ‘만족’, 4명은 ‘보통’을 선택하였다. 대체로 만족한 편이나 코멘트를 보면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수업활동에 교사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강사로서 수업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생들은 팬데믹 종료 후에도 비대면 교육 방식 선호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 강사들은 면대면 수업 방식 선호도가 높았다. 강사 6명이 면대면 방식을, 2명이 비대면 방식을 선택하였다. 2명은 혼합방식을 기타 의견에 남겼다. 아무래도 면대면 방식의 실습 교육에 익숙하고 면대면 교육의 장점을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생들의 수업태도에 대해 강사 3명은 교육생들이 모두 성실히 임하였다

13) 연구자가 통역이론 과목 수업을 하고 유일하게 한국어반을 담당하여 교육생 접촉이 제일 많았지만 본인이 만든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설문결과 분석과 문제점 분석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고 평가하였고, 7명은 대체로 성실히 임했다고 답하였다. 코멘트를 보면 교육생 중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화면을 끄고 무응답이라든지,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평일 근무시간에 직장에서 화면을 켜놓기만 하고 실제 실습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심지어 버스로 이동 중이거나 운전 중에 어수선한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한 교육생도 일부 있어 수업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기본과정 실습시간은 3시간으로 이전에 비해 1시간 이상 증가하였는데 기본과정 실습 수업 시간에 대해 강사 7명은 ‘적당’하다는 의견이었고, 2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1명은 ‘기타’를 선택하였는데 대면 1회, 비대면 1회로 최소 2회를 마련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숙지하는지 교수자가 실습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실습 시간을 늘리지 않더라도 2시간 1시간 또는 1시간 반씩 나누어 최소 2회를 만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심화과정 실습 수업은 9시간으로 과거 대비 시간을 늘린 것인데 이에 대해 강사 6명은 ‘적당’하다는 의견이었고, 1명은 ‘줄여도 된다’고 답했고, 3명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 역시 교육생 숫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응답을 분석해보면 20명 이상인 경우 교육생이 많아 충분한 피드백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회당 3시간은 필요하지만 교육생 숫자가 적으면 이보다 적은 시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강사 1명은 기본과 심화 과정 모두 실습시간이 20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실기 교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수언어 통역실습 강사의 경우 이중언어 구사력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통역실습이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언어별로 또는 수업별로 수강 인원 차이가 크다보니 2020년 담당한 교육생 숫자의 합이 10~20명인 강사에서부터 100명 이상인 강사도 있었다. 반별 인원 수준에 대해 강사 절반이 ‘많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절반은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평균적인 교육생 통역능력 수준에 대한 강사들의 답변을 보면 언어별로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수사통역이 가능한 수준의 교육생이 더 많지만 통역능력이 매우 부족한 통역인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 강사 2명만 평균적으로 교육생들이 ‘우수한 편’으로 다양한 사건의 통역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강사 7명은 일반적인 수사 통역은 가능한 ‘보통

수준’이라는 의견이고, 소수언어 강사 1명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으로 아주 간단한 통역만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sup>14)</sup> 교육생들의 개별적인 차이도 있지만 언어별 교육생의 편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심화과정 후 개별 평가에서도 언어별로 합격률이 크게 달랐다.

온라인 수업 방식도 통역실습 수업 운영의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였다. 비대면방식이라 통제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통역 시간에는 듣고 통역하라는 강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재를 읽고 시역을 하는 교육생들이 상당수 있어서 통역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듣고 이해하여 즉시 통역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통역 훈련 방식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강사가 거듭 안내하였음에도 일부 언어의 경우 교육생의 변화가 없었다. 기본과정은 1회 교육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여도 심화과정은 3회 내내 이러한 학습태도를 고집한 교육생이 있어서 시역과 통역은 다르고, 평가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의를 주어야 했다.

그밖에 애로 사항으로 강사들은 수업 인원을 많이 언급하였다. 강사들의 의견을 보면 30~40명을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하여 그룹별로 나누어 소그룹 실습을 하도록 하였을 때 그룹별로 시간을 안배하여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등 교육생 숫자로 인한 애로가 컸다.

통역실습 교재에 모범답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강사들의 의견을 구하였는데, 10명 중 8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는 것은 통역 기술이 부족한 교육생 수준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진술거부권 고지와 같이 필수적인 문구는 정확한 표현을 해당 언어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재에 대응 번역을 제시하면 해당 표현을 익히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습 교육을 하면서도 통역 아닌 시역을 한 교육생들이 다수 있었던 점을 볼 때 통역연습이 제대로 될지, 보고 읽거나 표현만 외우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 교육생 수준과 교육 목표 등에 대한 고

14) 가르친 교육생 중 통역을 무난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한 교육생이 전체 교육인원 중 어느 정도인지 질문에 대해 10% 이하 수준이라고 답한 강사가 1명, 20% 이하라고 답한 강사가 4명, 30% 이하가 2명, 60% 이하가 3명이었다. 반대로 통역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비중에 대해 10% 미만이라고 답한 강사는 2명, 20% 이하는 2명, 30% 이하는 3명, 40% 이하는 1명, 60% 이하는 2명이었다.

민과 함께 앞으로 교육 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 밖에 강사 코멘트 중에 가능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통역 능력을 갖춘 통역인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기본과정에서도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 득점 시 심화과정을 듣게 한다면 우수 인력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통역 기본기를 교육하기에 언어구사력이 매우 부족한 교육생들의 문제는 해마다 접하는 강사 피드백이기도 하다. 실습시간에 교재의 대화지문을 서로 읽어주어야 하는데 대화 지문을 읽는 것조차 힘든 교육생도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통역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교육생이 섞여 있는 한편 사회경험이 많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교육이 쉽지 않은 점도 애로사항이다. 올해는 비대면이라 교육생 간의 토의가 많지 않았지만 이전 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의 피드백 중에는 직무윤리 원칙 교육 직후 분반 실습시간에 윤리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는 자신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공유하는 교육생도 있었고, 자신의 언어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너무 제한적인 언어구사력으로 인해 통역교육이 어려운(unteachable) 교육생도 있었다. 교육생들의 상이한 언어기술 수준이나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 및 경험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은 성인교육의 특성이겠지만 통역 강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Mikkelsen et al. 2020: 165).

#### 4. 개선점

2018년 이후 2020년 교육 경험을 토대로 제안할 만한 개선사항으로는 통역인 교육에 대한 장기적 접근과 일관성, 경찰의 통역인 교육에 대한 이해와 소통, 시간적 여유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위탁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고, 서로 맞물려 있어서 사항별로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한다.

경찰 통역인 교육을 진행한 3년 동안 위탁교육 사업자는 매해 바뀌었지만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교육콘텐츠 개발의 주된 역할은 동일한 연구자가 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의 연속성이 지켜질 수 있었고, 교육 관련 특이사항이나 개선사항에 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매회 교육 동안 관찰한 점이나 교육생 및 강사들의 피드백을 종합적이고 성찰적으로 분석하고 차기

년도 교육에 반영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꾀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 경험을 축적하여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주체인 사업자와 경찰 담당자들이 매번 교체되어 일관성 있는 장기적 계획 수립이 쉽지 않았다. 사업자가 새로 선정되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책임교수자 역할을 해온 연구자로서는 경찰 통역인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진행 방식을 이해시키는 작업을 매번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사업자에 따라 경찰 통역인 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운용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사업 관점에서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의 방향성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 경찰 내부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고 이전 담당자가 남긴 기록을 참고하여 새로운 담당자가 교육을 계획 준비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성적인 정보가 많이 누락된 채 일반적인 연수 내지 교육 프로그램처럼 통역인 교육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통역 교육이 지식 위주의 일반 교육과 다르다는 점을 비전공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탁교육이 경찰청 내부 사정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자나 연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경찰 일정에 맞춰 2020년의 경우 한 달 남짓 기간 내에 준비와 교육 및 평가를 모두 완료해야 했다. 2020년에는 심화과정의 통역실습교육이 일일 교육이 아닌, 3회차 교육으로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 변화라 하겠지만 교육인원 대비 전체 교육 기간이 짧아 3일 연속 또는 4~5일에 걸쳐 3회 실습수업을 함으로써 교육생 개인이 학습 내용을 숙지하고 훈련할 시간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 교육생의 통역능력 수준 차가 크다 보니 심화과정 교육생 일부의 언어구사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교육 회차를 늘린 것만으로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축박한 일정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니 2020년에는 교재 인쇄본이 준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재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 못하고 못 받았다는 교육생도 있었다. 또한 휴대폰으로 줌 교육을 받으면서 교재를 보기 어렵다는 교육생도 있었다. 자신이 휴대폰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하면 미리 교재를 출력하여 읽어볼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는데 교육생의 준비 부족 탓도 있지만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여유가 없었다.

매해 다른 사업자와 경찰 담당자가 교육을 맡으면서 통역실습 교육 인원의 적정수가 잘 지켜지지 않은 점과 교육대상자 모집에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는 교육 효과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소다. 경찰 통역인 전문화 교육을 위해 교육 인원 제한과 통역을 위한 언어능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력과 무관하게 전체 통역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교육생 숫자는 많고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어려웠다. 일관성 있는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찰과 위탁사업자 그리고 교수자 간의 소통은 계획 단계부터 교육의 성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9년보다 2020년에는 연구자와 위탁사업자 간 소통은 원활하였으나 발주처인 경찰을 포함한 삼자 간의 소통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참가 기준이 달라진 점이 소통 부족의 대표적인 예다. 교육과정의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소위 ‘우수한’ 통역인들을 경찰이 심화과정에 배정한 결과 통역실습 수업에서 개인 편차로 인한 강사의 고충과 교육생의 오해를 초래하였다.<sup>15)</sup> 교육과정을 계획한 교수자와 사업자, 경찰청, 그리고 각 지역 통역인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공지와 모집을 하는 지방 경찰청과 경찰청 모두의 원활한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다.

앞서 소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도 교육생의 37% 정도가 기존 위탁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고 나머지 63% 정도는 처음 접하는 교육이다. 지방 거주 통역인들을 위한 교육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한편 해마다 자기 계발을 위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통역인도 있지만 처음 교육을 받는 통역인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 경험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을 달리하여 필요에 맞게 학습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교육은 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를 구분하여 교육 내용을 달리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장기적 접근 없이 어렵다.

15) 교육생들도 개설된 교육과정의 차이점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통역 수준에 따른 구분으로 생각하였다. 연구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과정 차이로만 생각하고 이론 수업을 하면서 기본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있는 것을 보고 기본과정부터 들으라고 안내하자 무시당했다며 기분이 상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생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소통 문제의 예로 기타 소수언어반 구성이 있다. 2020년 심화과정 통역 실습반 중 기타 소수언어 통역인을 위한 한국어반은 원래 이주민을 위한 반을 구상했으나 한국인도 받아달라는 경찰측 요청이 있었다. 다만 언어별 실습을 위해 최소 동일 언어 2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연구자가 제시하였지만 실제 한국어반 통역 실습 수업에는 벵골어와 아랍어 통역인으로 한국인 1인이 각기 참여하였고, 우즈베크어 이주민 통역인 1명이 있었다. 이들은 이전에 기본과정 교육에 참가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본과정에 동일한 언어 통역인들이 있어서 기본과정 수업에서 같은 언어 원어민 통역인들과 실습했다면 더 유익했을 것이지만 심화과정 수업에서는 혼자서 양방향 통역 실습이 불가하였다. 교육과정 분반 및 실습반 인원 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찰측에서 단순한 숫자 논리로 처음에 계획한 인원을 채우는 식으로 인원을 배정하여 통보해버린 결과였다. 또한 경찰에서 제공한 교육생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여 소그룹 활동을 위한 소회의실 배정을 위해 수업시간에 이름과 언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남긴 코멘트를 보면 경찰 통역인 교육의 취지와 교육 목적을 잘 모르고 법정통역을 포함한 사법통역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거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이 있었다. 경찰 수사단계 통역에 관한 교육이라는 교육 목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어야 교육에 대한 기대와 성취에 대한 만족도가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주민에서부터 교육생들의 언어구사력 등에서 개인차가 크다 보니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교육생 수준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전에 시간 여유를 두고 교육생의 언어능력이나 통역기초능력을 간단히 심사하여 교육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생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사 입장에서도 학습 활동을 지도하기 수월하고 교육 효과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중언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회귀 언어 이주민 통역인이라면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우선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어숙달 프로그램부터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지은 외 2018a). 언어 배경 및 통역 교육 수준에 따른 교육생들의 니즈에 대한 고려 없이 일회성 사업으로 통역인 교육을 실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을 준비하지 않는

다면 사업자나 교수자에 따라 교육 내용은 조금 달라지지만 방향성 없는 단기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화 교육은 요원해진다.

앞서 강사 피드백에 대한 논의에서 경찰 통역 교육생이 일반 학생과 다른 특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통역인 자질 관리의 어려움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과 2019년은 일일교육을 충실하게 참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수료증이 발급하여 교육 종료 시점에 개별적으로 수여하였다. 하지만 그간 일부 통역인이 교육 수료증을 자격증처럼 오용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2020년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경찰측에서 결정하였다. 일부 통역인들의 윤리의식 부족은 직무윤리 교육을 무색하게 하였다. 비대면방식으로 개별 평가시험을 보기 때문에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녹음 등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도록 하여 비밀유지는 중요한 직무윤리인 점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역인들은 해당 언어 통역인 교육을 위해 개설한 카톡방에서 시험에 나온 표현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다 다툼이 생긴 사례가 있다. 직무윤리는 일회성 교육이나 시험 평가로는 한계가 있음을 또다시 절감하게 한 경험이었다.<sup>16)</sup>

끝으로 경찰과 사업자 그리고 교수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결국 경찰의 통역 및 통역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있다. 경찰청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응당 경찰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매년 교육 내용에 대해 현장 참관이나 조서 등 실무 자료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은 적이 없다. 이번에도 담당 부서는 교재 내용 작성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사후 내용을 검토하는 정도였고, 이마저도 오래 걸려 교재 인쇄가 실습교육 전에 불가하였다. 계약관계 때문에 사업자는 경찰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번 위탁교육에서 심화과정만이라도 개별 평가를 포함한 것은 분명히 성과인데 수치적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

16) 이와 비슷한 통역인들의 윤리 의식 문제는 경찰 통역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8년 수원지법 통역인인증시험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시험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통역인으로서 비밀을 준수해줄 것을 서약하게 하였으나 일부 통역인들은 시험 직후 시험내용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2018년 시험에서는 범죄경력 때문에 응시자격이 박탈되었지만 2019년에는 법원의 범죄경력 조치가 없어 합격한 통역인도 있다.

은 경찰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가 고민거리였던 점을 고려할 때 평가시험의 목적과 공정한 평가 방식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와 상호 이해가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sup>17)</sup> 위탁교육의 성격상 사업발주측에서 교육 과정 설계 의도와 운영 방식, 그리고 통역 교육 및 평가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지 않으면 행정 편의 위주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상 논의한 내용은 차기 교육과정 기획 및 준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개선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의 관심과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교수자이자 연구자 입장에서 3년간 연도별로 시행된 경찰 통역인 위탁교육의 연도별 주요 특징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였다. 사법통역인 교육을 대상으로 한 이지은(2013)의 선행 연구가 1회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교수자와 운영주체가 동일하였던 데 비해 본 연구는 3회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연구자는 사업자와 각각 다른 관계에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위탁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관계에 따라 교수자의 의사결정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사업자가 교수자와 동일 기관이 아닌 경우 발주 기관과 시행주체인 위탁용역 사업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내용을 책임지는 교수자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와 원활한 소통이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동안 사법통역 교육 필요성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체계적인 사법통역인 교육을 위해 사법부 및 유관기관의 정책 의지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이지은 2012: 232; 홍서연 2018: 226). 다행히 지난 10년간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교육 기회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기관이나 부처의 특별 사업이나 행

17) 국가기관이 통역 시험 합격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2018년 법정통역인 인증평가 당시에도 경험한 바 있었던 만큼, 통역 전문가와 시각이 다른 국가기관이 사업과제로 실시하는 통번역 인증평가시험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부담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 성격으로 치러지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통역 교육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서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치화된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는 공공과제의 특성과 위탁과제의 특성이 교육과 평가의 순수한 목적을 일부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교수자는 통역의 특성과 통역 교육 및 평가에 대해 경찰과 위탁사업자가 이해하도록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경찰 통역인 교육에 관해 경찰과 통역전문가가 내실 있는 교육을 함께 구상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을 계획하고, 무엇보다 교육생의 필요를 고려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역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경찰과 사업자 모두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 통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수한 이중언어능력을 기반으로 한 통역 능력을 갖춘 통역인을 집중 육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통역 인력을 전국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역인 운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이지은 외 2018a). 수요가 높은 언어의 경우 일당직 민간인 통역인이 아닌 전문적인 경찰 통역관직을 신설하고, 민간인 통역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이지은 외 2018a).<sup>18)</sup> 보다 전문적인 인력으로 통역인력이 구성될 때에만 지금과 같은 단기 교육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콘텐츠를 제작한 교수자가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험연구 관점에서 지난 3년간의 경찰 통역인 교육 경험을 공유하였다. 연구자인 교수자 시각에서 작성되어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경찰과 사업자의 시각은 다루이지 않은 한계가 있다. 모쪼록 본 연구가 유사한 위탁교육 프로그

18) 경찰 통역관직을 제안하는 이유는 외사경찰관이 통역업무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력 구성이나 처우면에서 한국 경찰 통역보다 사정이 나은 일본을 참고하자면 현마다 경찰 통역센터가 있고, 경찰 직원 신분의 통역인과 도도부현(행정구역) 경찰에 등록된 프리랜서 통역인들이 통역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일본 경찰 통역관들은 통번역을 위한 장기 교육을 받는다(이지은 외 2018: 55-57).

램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교수자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통역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이지은 (2012) 『다문화사회의 사법통역』 서울: 집문당.  
 이지은 (2013) 「사법 통역 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사법 통역 전문가 기초과정 운영 사례」, 『번역학연구』 14(5): 195-223.  
 이지은 (2014) 「이주여성 경찰 통역인들의 경찰 통역에 대한 인식: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2(1): 157-186.  
 이지은 (2015) 「경찰 통역 실태와 경찰관의 인식 조사 사례연구」, 『T&I Review』 5: 93-120.  
 이지은 (2019) 「경찰 통역인 선발제도 개선 및 교육 필요성에 관한 소고」, 『통역과 번역』 21(2): 169-194.  
 이지은 (2021) 「비모국어 화자의 법률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고찰」, 『T&I Review』 11(1).  
 이지은, 허지은, 장우혁 (2018a) 『전문 수사통역관 인증제도 및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연구』. 경찰청 용역연구과제 보고서.  
 이지은, 이유진, 최효은 (2018b)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용역연구과제 보고서.  
 이지은, 홍서연 (2020) 「피의자신문 통역 담화분석을 통해 본 비전문 통역인의 자기발화수정 양상: 러시아어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5): 237-267.  
 정철자 (2020) 「국내 사법통번역 인증평가 사례연구: 윤리의식 평가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2): 203-227.  
 정철자, 김진아, 박수레, 박현일, 김지은, 홍승빈 (2019a) 『난민전문통역인 자격 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 방안 연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용역연구과제 보고서.

- 정철자, 김진아, 김한식, 박현일, 김지은, 유한내, 박세리, 홍승빈 (2019b) 『법정 통번역인 평가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용역연구과제 보고서.
- 홍서연 (2018) 「국내 사법 통역 교육의 현황 및 제언: 보고논문」, 『통번역학연구』 22(2): 207-231.
- Berk-Seligson, Susan (2010) *Coerced Confessions: The Discourse of Bilingual Police Interrogations*. Berlin: Mouton de Gruyter.
- Lee, Jieun (2017) 'A case study of interpreter-mediated witness statement: Police interpreting in South Korea',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18(2): 194-205.
- Lee, Jieun and Seoyeon Hong (2020) 'Help Me to Help You to Help Me: A Conversation Analytic Study of Other-Initiated Repairs in a Case of Korean - Russian Interpreter-Mediated Investigative Interviews in South Korea', *Perspectives* DOI: 10.1080/0907676X.2020.1841811.
- Mikkelsen, Holly, Amy Slay, Patericia Szasz and Bob Cole (2020) 'Innovations in Online Interpreter Education: A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in Community Interpreting', in David B. Sawyer, Frank Austermuhl and Vanessa Enriquez Raido (eds) *The Evolving Curriculum in Interpreter and Translator Edu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61-184.
- Stern, Lumila and Xin Liu (2019) 'See You in Court: How Do Australian Institutions Train Legal Interpreter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13(4): 361-389.

[Abstract]

**An Overview of KNPA Police Interpreter Training Projects: From a Trainer's Perspective**

Lee, Jie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commissioned interpreter training over the past three years (2018-2020) from a trainer's point of view. Over 1,350 interpreters have received training that ranged from five hours to 14 hours.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raining programs and major features, and evaluation of the overall programs from planning to implementation. Trainees' satisfaction level remained high regardless the mode of training, be it in-person or online. There is a strong consensus among trainees that the training was beneficial preparing them for police interpreting work. Despite some progress over the years, key issues remain to be addressed, such as the lack of police understanding of interpreter training and communication among police, the agency, and the trainer/researcher who develops the curriculum and teaching materials. This paper argues that to achieve the best outcome, police should take a long-term approach, allow sufficient time from planning to delivery, and select trainees who are ready for interpreting skill training. Given that interpreter skill training is effective when conducted in smaller groups, and only for those who have a certain level of interpreting skills, specialized training tailored to the needs of different groups of interpreter trainees is strongly recommended.

▶ Key Words: police interpreters, training, feedback, assessment, action research

▶ 주제어: 경찰 통역인, 위탁교육, 피드백, 평가, 실행연구

이지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jieun.lee@ewha.ac.kr](mailto:jieun.lee@ewha.ac.kr)

관심분야: 사법통역, 법률번역, 통번역교육, 담화분석

논문투고일: 2021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2021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24일